[‘생태계 보물섬 제주’ 그 百年의 기록<29>]한라산 전역 확산 종 다양성 위협

제1부/제주식물 세계화 100년(28)제주조릿대의 반란

입력 : 2004. 11.08. 00:00:00

▲한라산 해발 1500m의 선작지왓 일대를 잠식한 제주조릿대 군락. 사진은 제주조릿대가 개화한 모습으로, 최근 연구자들은 조릿대가 개화한 후에도 생장을 멈추지 않는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한라산 해발 1500m의 선작지왓 일대를 잠식한 제주조릿대 군락. 사진은 제주조릿대가 개화한 모습으로, 최근 연구자들은 조릿대가 개화한 후에도 생장을 멈추지 않는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가정해서 요즈음 ‘한라산을 대표하는 식물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제주도민들은 매우 난감해질 것이다. 구상나무인지 아니면 시로미나 왕벚나무가 될지 선뜻 해답이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럴까. 이 질문이 제주도민들을 고민스럽게 한다면 아마도 제주조릿대의 왕성한 번식과 무관하지 않다.

제주조릿대의 번식이 전혀 새롭거나 어느날 갑작스럽게 부각된 것은 아니다. 오래전에도 제주조릿대는 한라산에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제주도의 식물을 연구해온 사람에게는 늘 관심이 돼왔다.

그런데 최근 제주조릿대가 제주식물의 화두로 떠오른 것은 한라산 정상까지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무시무시한 번식력에 있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이 제주는 식물의 보고다. 제주도의 식물은 약 2천종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한반도 전체 종 수 4천여종의 절반을 차지한다.

한라일보

그러나 최근 한라산에 제주조릿대가 번성하면서 기존 식생의 심상치 않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제주조릿대는 한라산 고산지대에 초원을 중심으로 점차 세력을 넓히기 시작해 지금은 윗세오름, 진달래밭 대피소는 물론 정상의 코앞인 장구목까지 잠식했다. 이런 추세라면 얼마되지 않아 한라산 아고산지대를 완전히 뒤덮어 버릴 기세다.

국제적으로도 이미 한라산 아고산 지대는 희귀식물이 집중 서식하고 있는 곳으로 그 중요성이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이곳의 드넓은 초원지대에는 한라솜다리, 탐라황기, 섬바위장대, 두메대극, 구름떡쑥 등 초본식물을 중심으로 하는 특산식물이 집단 자생하고 있어 '종의 피난처'이며 '종다양성의 보고'로서 아무리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

취재진은 지난 2002년 제주조릿대의 이상번식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국가차원의 관심과 종다양성 보호를 부르짖어왔다. 산림청과 한라산연구소가 이에대한 연구를 본격화하고 있지만 한라산 전역으로 확산된 제주조릿대는 이미 인위적으로 간섭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나 버렸다.

조릿대류의 생태적 특성에 대한 정보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전체 산림 면적의 25%를 조릿대류가 차지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에대한 연구가 진행돼 왔다.

특히 주목할만 한 것은 지난 1980년대 중반 한라산국립공원내에 방목 등이 금지되면서 제주조릿대가 급격한 생장과 함께 그 세력을 넓혀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고지대에 자생하는 고산식물 등의 생육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에대한 체계적인 조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제주조릿대 확산 실태]해발 600~1,900m 뒤덮어

제주조릿대의 확산실태는 논의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한라산 전역에 이른다. 한라산연구소는 제주조릿대의 분포정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제주조릿대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발 600m에서 1900m까지 주로 분포한다. 이들 지역에는 계곡, 암석지, 목초지, 일부 오름의 정상, 습지 등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높은 빈도로 분포하고 있다. 또한 해발 600m이하 지역에서도 일부 오름 및 상록활엽수림에서도 분포하고 있으며 이들의 분포역은 점점 세력이 확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식생 위기의 원인은 무엇일까?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고, 더욱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없는 상황에서 이 물음에 답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지구의 온난화나 산성비 또는 식생천이 과정에서 나오는 자연스런 현상이라는 지적이 많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설령 자연현상이라 하더라도 식물종이 멸종되어버린다면 선진국의 경우

한라일보

처럼 이를 반영구적으로 현지 외에서 보존하는 '밀레니엄 종자은행'이나 수목원에서의 역할분담과 같은 적극적인 방안이 연구되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번 지구상에서 사라진 생명체는 다시 되살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제주조릿대를 적극 이용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한국토종약초연구학회측은 "조릿대 새 순으로 차를 끓여 마시면 암, 당뇨병, 고혈압, 위궤양 등에 놀랄만큼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일본에서는 조릿대를 이용한 건강식품이 크게 인기를 얻고 있다. 서재철씨는 "조릿대를 전통초가의 지붕을 잇는 '새' 대용으로 활용한다면 훨씬 운치도 있고 기간도 오래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한다.

한라산연구소 고정군박사(연구팀장)도 이 점을 강조한다. "제주조릿대가 한라산의 생태계에 주요한 구성인자로 위치하며, 이용적 측면의 연구에 따라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자원적 가치도 높은 요소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이 때문에 보다 다양한 접근을 통한 제주조릿대의 연구와 함께 자원화에 대한 연구도 요구된다."

/강시영기자 sykang@hallailbo.co.kr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라일보